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0cba1fdee8732728db18b36cbf190fee06bd7e7a7b44c83b9cab4415ef04ba79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경로에 불확실성 가증
 - 바이든 대통령, 고용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여전히 지속
 - 일본 스가 총리,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포기로 취임 1년만 총리직 사임
 -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, 46.7로 '20.4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국면 진입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8월 비농업 취업자수의 시장 예상치 큰 폭 하회가 영향
 - 주가 보합[-0.0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고용지표 부진 속 연준 테이퍼링 지연 기대로 보합
유로 Stoxx 600 지수는 미국 지표 부진 충격 등으로 0.6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9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 후퇴 등을 반영하면서 하락
유로화는 보합, 엔화 가치는 0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 둔화 속 임금상승률 예상치 상회 등에 상승
독일도 미국과 유사한 영향으로 인플레이 우려가 부각되면서 3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55.9원, -1.1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9/3일	9/2일	전일대비			9/3일	9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35.4	4,537.0	-0.03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2%	1.28%	4bp
	유럽	471.93	474.60	-0.56%		독일	-0.36%	-0.39%	3bp
	중국	3,581.7	3,597.0	-0.43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9,128	28,544	2.05%		중국	33bp	33bp	0bp
	한국	3,201.1	3,175.9	0.79%	위험 지표	EMBI+	348	349	-1bp
환율	달러지수	92.12	92.23	-0.12%		VIX	16.41	16.41	0.00%
	유로화	1.1880	1.1875	0.04%		WTI유	69.29	69.99	-1.00
	엔화	109.71	109.94	0.21%	원자재	구리	432.55	428.4	0.83%
	위안화	6,4560	6,4565	0.01%		금	1,827.7	1,809.7	1.00%
	원화	1,157.0	1,161.5	0.3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경로에 불확실성 가중

-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23.5만명으로 예상치인 73.3만명을 크게 하회하고 7월 105.3만명에도 미달. 8월 실업률은 예상치인 5.2%에 부합했으며 7월 5.4%보다 하락. 노동부는 지표 부진이 델타 변이 확산세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설명
- 금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을 가늠하는 데 핵심 변수였던 만큼 향후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. 9월 중 테이퍼링 발표 전망이 크게 악화하고 11월 이후 발표 가능성이 증가
-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. 일각에서는 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 및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확대가 증시를 지지할 가능성에 주목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바이든 대통령, 고용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여전히 지속

-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8월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은 델타 변이 확산에 기인하며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
- 취임 직후 통화시킨 \$1.9조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 늘고 있음을 강조. 또한 델타 변이 대응을 위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의회에 인프라 법안 및 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

■ 일본 스가 총리,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포기로 취임 1년만 총리직 사임

- 스가 총리는 9.29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사임. 일본 증시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연말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정부가 꾸려질 것이란 기대감에 큰 폭 상승

■ 뉴욕 연은,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GDP 예상치 발표 중단

- 뉴욕 연은은 GDP 예상치를 산출하는 나우캐스트 모델 개선을 위해 예상치 공개 중단을 발표. 팬데믹 불확실성으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측에 어려움이 커진 데 기인

■ 도쿄증권거래소, 거래 종료 시각을 현재보다 30분 연장 방안 검토

- NHK와 교도통신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현행 거래 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 보도. 거래 시간 연장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

■ 중국, 선물시장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발표

- 중국 국무원은 국내 선물시장에 해외 투자자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위안화 표기 원자재 선물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. 선물 거래 종목을 늘리고 지식 재산권 자산 유동화를 위한 예비 체제도 출범시킬 방침

■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, 46.7로 '20.4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국면 진입

- 8월 서비스업 PMI는 7월까지 1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했으나 8월에 '20.4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하회. 합성 PMI도 7월 53.1에서 8월 47.2로 하락하면서 위축국면 진입
- 차이신의 왕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 위축이 7월 후반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한다고 언급. 다만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신속하게 억제될 수 있으며 곧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낙관적 전망을 유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(만명): 23.5, 7월(105.3), 예상치(73.3)
- 미국 8월 실업률: 5.2%, 7월(5.4%), 예상치(5.2%)
- 미국 8월 시간당 평균 임금(전월비): 0.6%, 7월(0.4%), 예상치(0.3%)
-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: 61.6, 7월(64.1), 예상치(61.7)
- 미국 8월 마켓 서비스업 PMI(확정치): 55.1, 7월(59.9), 속보치(55.2)
- 유로존 8월 마켓 서비스업 PMI(확정치): 59.0, 7월(59.8), 속보치(59.7)
- 유로존 7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3.1%, 6월(5.4%), 예상치(4.5%)
-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: 46.7, 7월(54.9), 예상치(52.0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